

사라진 건축문화유산의 대중설명 전략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Public Presentation Strategies for Lost Architectural Heritage :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황 민 주* 윤 현 철**
Hwang, Min-Ju Youn, Hyun-Chu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Eastern and Western conservation traditions and authenticity criteria influence the public interpretation of lost architectural heritage. Focusing on sites where only remnants or foundations remain, a comparative analysis of Eastern and Western architectural heritage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veals that Eastern wooden architecture, mostly lost, relies on symbolic and contextual modes of interpretation, while Western stone architecture, with partial structural remains, adopts explanations centered on tangible experience and visual understanding. Such interpretive strategies, reflecting both the physical condition and cultural context of heritage sites, provide a framework for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public engagement with architectural heritage.

키워드 : 대중설명, 동-서양 건축의 차이, 보존 양상, 진정성

Keywords : Public Presentation, Difference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Architecture, preservation patterns. Authenticity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한국과 세계 각지에는 건축물은 소실되고 터나 일부 흔적만 남은 사라진 건축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유적은 단순 잔존물이 아니라, 시대적·정신적 가치를 담은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대중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형이 불분명하거나 대부분 소실된 유적의 경우, 단순한 실물 복원만으로는 그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동서양의 대표적 사라진 건축문화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료와 구조적 특성, 문화적 가치관이 보존 양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문화권 건축문화유산의 가치판단 기준과 대중설명 방식 간 영향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유적의 물리적 상태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대중설명 전략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사라진 건축문화유산의 대중설명 전략을 동서양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 유적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동양 사례로는 한국 황룡사 9층 목탑(E1), 중국 대명궁(E2)을 선정하였다. 서양 사례로는 그리스 델포이 아폴로 신전(W1)과 이탈리아 포로 로마노(W2)를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 기준은 ① 건축적 기반 ② 남아 있는 흔적의 정도 ③ 역사적·문화적 중요성 ④ 대중설명을 위한 기존 시도 여부를 포함하였다.

특히 역사·문화적 중요성 평가는 첫째, Kim & Kim(202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이미 국가나 국제기관에서 인정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였다. 둘째로, 문헌 기록 및 학술적 연구를 통해 고문헌, 고지도, 사료에서 언급된 정도와 기존 학술 연구에서 중요성이 평가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셋째로, 사회·문화적 영향력으로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에서 역사적 의미, 상징성,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문화행사, 관광, 교육 활용 여부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존 및 활용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흔적이 다른 유적보다 많거나, 재현·체험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단순히 기준을 만족하는 유적 중 하나가

* 경북대 건축학부 학사과정

**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nagoris@knu.ac.kr)

아니라, 연구 목적과 분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사례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의 건축 주재료와 구축법, 보존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사라진 건축문화유산이 남긴 물리적 흔적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동서양의 건축문화유산 가치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각 유적의 대중설명 방식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접근과 현대적 해석을 비교하여, 사라진 건축문화유산에 적용 가능한 대중설명 방식을 살펴봤다.

2. 사례 분석

2.1 사례 선정 개요

동서양의 건축문화유산의 건축적 특징, 역사·문화적 중요성, 문화유산 가치 기준을 <표 1>로 비교하였다.

E1은 신라 시대 경주에 세워진 목조 탑으로, 한국 목조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 유적이다. 현재는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탑의 터와 기초 구조를 통해 9층 높이와 전체 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며, 경주 황룡사 전체 단지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E2는 당태종이 조성한 거대한 황궁 단지로, 중국에서 궁궐 유적의 범위와 배치가 가장 온전히 확인되는 사례이다. 현재 대부분의 목조 건물은 소실되었지만, 기초석과 축대, 일부 기둥 구조를 통해 건물의 배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총 면적 약 3.2km²로 자금성의 4.5배 규모로 추정된다.

W1은 도리아식 기둥과 경사 플랫폼, 아디톤⁴⁾과 제단 등 건축적·종교적 요소가 결합된 문화유산이다. 이 성소는 아폴론 신화와 신탁, 피티아 경기 등 종교와 정치, 공동체 축제가 교차하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390년 테오도시우스 1세의 명령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현재는 흔

적만 남아있다.

W2는 광장을 중심으로 신전, 행정 건축, 기념물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정치 권력과 종교 의례가 교차하는 무대로 기능하였다. 다양한 건축 유적이 분포하며, 일부는 원형에 근접할 정도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으나 상당수는 부분적으로만 남거나 완전히 소실되어 그 흔적만 확인할 수 있다.

2.2 동서양 건축문화유산의 건축 및 보존 양상

동서양의 건축문화유산은 주재료와 구축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Tian & Xiao(2022)에 따르면 동양과 서양은 문화와 지리적 환경에 의해 각각 목조 구조와 석조 구조가 발달해왔다.

동양에서는 지진이 빈번하고 토질이 흙 기반인 지역이 많아, 기둥을 지반에 직접 박아 하중을 분산시키는 목조 구조가 발달하였다. 기둥과 보를 맞물려 잇는 결구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가 주된 형태를 이루며, 벽체는 구조적 역할이 약한 칸막이로 기능하였다. 목조 건축은 부식과 화재에 취약하여 대부분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서양에서는 대리석과 석회암 등 가공이 용이한 석재가 풍부해 이를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서양의 토양은 주로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압축강도에 강한 석재를 쌓아 올리는 조적구조가 발달하였다. 이로 인해 벽체 자체가 구조체로 기능하며, 두꺼운 벽, 아치, 볼트, 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소가 발달하였다.

E1은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고전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1964년 목탑 터를 보존하자는 학자들의 건의에 따라 부분 정비를 실시하였고, 1981년 목탑지 초석을 정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하여 현재의 모습과 같이 초석과 터로 남아 있다.

표 1. 분석 대상 건축문화유산의 특징 및 개요

국가 기준	한국	중국	그리스	이탈리아
	E1	E2	W1	W2
사례	황룡사 9층 목탑	대명궁	텔포이 아폴로 신전	포로 로마노 ²⁾
이미지				
역사·문화적 중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 대한민국 국가유산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 전국중점문화물보호단위 ³⁾	유네스코 세계유산 / 그리스 국가 보호 문화유산 지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 이탈리아 문화유산부 로마 고고유적 지정
문화유산 의의	터와 기록 중심의 역사적 상징성	터와 기록 중심의 역사적 상징성, 실크로드의 문화적 유산	원형 유구의 보존 통해 고대 그리스 건축 이상 증명, 신화·종교·공동체적 의미 반영	일부 원형 건축물 보존 통한 역사적·건축적 의미

E2는 1957년 이후 고고학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약 60여 년간 발굴을 통해 단봉문, 함원전, 선정전, 자신전, 연영전 등 주요 유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유적의 일부에 불과하며, <표 2>와 같이 기반부만 남겨나 터로만 존재한다(Lee, Cha & Lee, 2017).

표 2. 대명궁 현황

함원전	선정전
	
자신전	연영전
	

W1은 기원후 390년 테오도시우스 1세의 명령으로 대부분의 건축물과 조각상, 예술품이 소실되어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다. 현존하는 유적은 경사진 플랫폼과 일부 도리아식 기둥, 다각형 석조 벽, 메토프와 박공의 조각 잔해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아디톤, 제단의 위치는 확인 가능하다.

W2 내 건축문화유산의 보존 상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된 건축물로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개선문, 티투스 개선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등이 있으며,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다. 일부만 현존하는 건축물로는 카스토르와 폴룩스 신전,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신전, 사투르누스 신전, 베스타 신전, 베누스와 로마 신전, 타볼라리움, 아트리움 베스타에, 레기아 등이 있으며, 주로 기둥, 기반부 등 일부 구조만 남아있다. 완전히 소실된 건축물로는 콩코르디아 신전, 야누스 신전, 아우구스투스 개선문 등이 있다.

동양은 E1이나 E2와 같이 목조 구조는 소실되고 기반부나 터, 일부 초석만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원형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서양은 W1이나 W2와 같이 기둥, 벽체, 아치 등 주요 구조체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존치되어 있다. 따라서 폐허 상태라 하더라도 물리적 원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건축의 규모와 형태를 보다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양과 구분된다. 이러한 보존 양상의 차이는 각 문화권 건축문화 유산의 가치판단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교적 최근까지 문화유산의 가치판단 기준은 진정성

(authenticity)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유산에서 진정성이란 ‘진정한, 진실된, 실존적’이라는 속성을 의미해왔다. 이는 일부 원형이 남아 있어 물리적 원형과 형태적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서양의 석조 건축문화유산에서 적절한 가치판단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동양 목조 건축문화유산은 대부분 원형이 소실되어 기존의 진정성(authenticity) 개념만으로는 가치판단이 어렵다. 이때 적절한 평가 기준으로 문화재 완전성(Integrity)을 적용할 수 있다. 완전성은 유산이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특징, 과정을 온전하게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단순히 물리적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규모, 기능, 역사적 맥락, 주변 경관 등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아우른다. 따라서 동양 목조 건축에서는 완전성(Integrity)이 가치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해, 동양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의미와 전통이 이어지는 ‘무상과 조화’의 원리를, 서양에서는 물리적 형태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영속성과 불변’을 강조하여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2.3 사라진 건축문화유산의 대중설명 전략

E1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터, 기반, 일부 구조물을 중심으로 보존하면서도 활용을 병행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 이러한 접근은 동양 건축문화유산의 진정성이 물리적 형태의 보존보다는 역사적 맥락과 연속성, 전통의 전승에 기반한다는 원리와 부합한다. 단순한 실물 재건을 넘어,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맥락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동양적 진정성 원리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E2는 2007년 이후 실제 건축물의 완전한 복원은 진행하지 않고 유적 위에 부분적 재현과 전시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봉문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하되, 시간의 흐름과 재현 건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단색으로 표현하였고, 자신전은 유구를 복토 정비한 후 철제 프레임의 이미지 전시 장치를 이용해 옛 목조 구조를 입체적으로 재현했다. 연영전은 형태를 복원하는 대신 기둥만 세워 규모를 짐작하게 하고 제례용 탁자를 배치하였다. 이는 <표 2>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과 고서 자료, 3D IMAX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궁정 의례와 문화, 역사적 배경을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W1은 영속성과 불변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1920년대의 부분 복원함으로써 신전의 물리적 형태와 건축적 의미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관람객이 유지된 원형 유적을 직접 바라보며 신전의 실제 규모를 체험하고, 당시 시대와 문화적 맥락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W2는 19세기 후반부터 발굴과 정비를 통해 유적을 드러내고 부분적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다. 원형 그대로 재건하기보다는 폐허 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조 보강, 기둥 일부 재세움, 보존 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Carettoni,

2) 유적군(Archaeological Complex)으로 남아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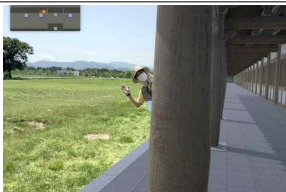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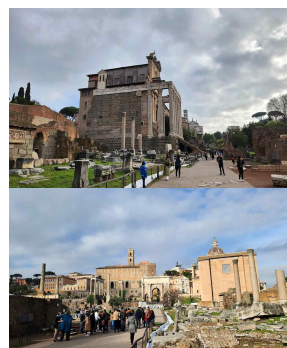
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지정하는 국가급 문화유산 보호제도

4) 그리스 신전에서 신탁을 전하던 곳

1960). 이러한 방식은 서양 건축문화유산 진정성의 원리, 즉 ‘원형 보존’과 ‘폐허의 지속성 유지’를 구현한 사례로, 관람객이 무너진 유적을 직접 마주하며 로마 제국의 역사성과 도시적 맥락을 체험하도록 하는 대중설명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표 3〉은 각 사례의 대중설명 방식을 보여준다. 동양은 기록·맥락 중심의 설명 방식, 서양은 물리적 원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다.

표 3. 사례별 대중설명 방식

E1 황룡사 디지털 복원 증강현실 프로그램 체험	E2 대명궁 3D IMAX - 대명궁전기
	
W1 델포이 아폴로 신전 원형 유적 체험	W2 포로 로마노 원형 유적 체험
	

3. 결론

본 연구는 사라진 건축문화유산의 보존 양상과 가치 판단 기준 해석, 그리고 이를 대중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를 동서양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양의 목조 구조는 재료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어 기단부만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적 원형을 직접적으로 복원하거나 체험하기는 어렵다. 반면, 서양의 석조 구조는 구조체가 부분적으로 존속하여 원형을 유추하거나 폐허 자체를 체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보존 양상의 차이는 가치판단 기준의 차이로 이어졌다. 동양에서는 소실된 건축의 의미와 맥락을 설명하며, 비물질적 가치의 계승을 중시하였다. 서양에서는 현존하는 폐허 자체를 역사적 실재로 제시함으로써, 물리적 흔적을 통한 진정성 유지가 강조되었다.

대중설명 전략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드러난다. 동양의 경우, 사라진 건축을 문자 기록, 디지털 복원, 모형 등 보조적 장치를 활용해 이해시키는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시간의 연속성과 상징적 해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

아간다. 서양의 경우, 폐허를 직접 체험하고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성을 체감하게 하며, ‘원형 보존’과 ‘폐허의 지속성 유지’를 강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사라진 건축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전략은 단일한 해석 틀에 종속될 수 없으며, 각 지역의 재료적 특성, 보존 상태,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서양의 비교를 통해 사라진 건축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이 물리적 흔적의 보존 여부뿐 아니라 문화적 관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유산 보존 및 대중 설명 전략 수립에서 보다 맥락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제한된 사례 분석으로 동서양 전반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문헌 분석에 의존하였기에 실제 관람객의 체험 방식이나 인식 차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사례를 확장적으로 비교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나 디지털 체험 방식의 효과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건축문화유산의 대중설명 방식을 실증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Carettoni, G. (1960). Excavations and Discoveries in the Forum Romanum and on the Palatine during the Last Fifty Years.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50(1-2), 192-203.
2. Kim, M., & Kim, Y. (2022). A comparative study of value criteria for selecting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al heritage in the UK and Korea. *Journal of the Federation of Architectural Societies of Korea*, 13-22.
3. Lee, S., Cha, E., & Lee, H. (2017). [Overseas report] Restoration and maintenance cases of historical sites in China and implications. *Kukto*, 434, 83-89.
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 Basic plan for the restoration of Hwangnyongsa Templ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5. Tian, M., & Xiao, X. (2022). The influence of Chinese and Western cultural traditions on ancient architecture. *Pacific International Journal*, 5(4), 105-111.